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처리 가속화

“올해 말까지 매달 6000건 처리할 것” 이민부, 서류접수 온라인으로 변경 검토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24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매달 6000건의 배우자 이민 초청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속 절차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부는 접수 서류를 검토할 직원을 66% 늘림으로써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수속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변경해 이민부 직원들이 원격 및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신청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민부는 이에 더해 촉진적 바이오메트릭스 등록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



로 몇 주 안에 원격으로 지원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민부는 유효한 바이오메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한 적이 없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민부는 새로운 조치들을 올해 말까지 우선 순위 지정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약 4만9000개의 적체된 신청건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배우자 초청 이민의 신청 처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

아 지연되면서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떠난 이산가족 사태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장관은 “느린 수속 처리로 인해 이민 신청 가족들에게 야기된 어려움을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2022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34만1000명의 이민자 수용 예상 인원 가운데 7만명을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분류하 바 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이 수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밴쿠버에서 IT 인력 3천명 채용



소프트웨어, 웹, 클라우드 개발 전문가

기존 2개 빌딩 임대 늘려 총 35층 사용

아마존이 밴쿠버에 IT 관련 회사를 세우고 총 3천 명의 기술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 이와 별도로 토론토에도 새 사업장을 만들어 5백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밴쿠버 사업 담당 제스 도허티(Jesse Dougherty) 부사장은 28일 밴쿠버가 지닌 “엄청난 IT 인재풀”에 기대를 건다면서 밴쿠버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다. 그는 새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적

규모의 사업을 캐나다인과 함께 일궈내고자 한다”고 말해 새 회사의 사업 성과와 규모를 짐작케 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밴쿠버 내 아마존사의 물리적인 규모도 그만큼 커진다. 아마존사는 2023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더 포스트(the Post)’ 빌딩 안에 사무 공간 6만3천 제곱미터를 더 임대해, 북쪽 타워 18층과 남쪽 타워 17층 등 총 35층을 쓰게 된다.

도허티 부사장은 이 사무 공간이 주로 IT 계통의 전문 인력으로 채워지는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웹사이트 디자이너,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가, 인공지능 언어 개발 전문가 등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아마존의 새 사업이 밴쿠버에 유치된 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실리콘 벨리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이르는 첨단 IT 벨트가 제반 환경과 인력자원이 좋은 밴쿠버로 확장되는 것을 시간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또한 밴쿠버가 제공하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여러 야외활동의 기회는 삶과 일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IT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편, 아마존사는 토론토에도 베이 스트리트(Bay St) 상에 사무 공간 만2천 제곱미터를 임대해 새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신규 직원 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여름께 새 사업장이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마존사는 지금까지도 캐나다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 총 6만7천 명을 고용함으로써 중추 IT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번 사업 확장을 통해 캐나다 경제와 고용에 대한 기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이민부, 코로나사태 감안

이민 비자 관련 임시 예외 조치



연방이민부(IRCC)는 캐나다 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졸업후취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일부 한시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하다.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회복 및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즉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경과 시, 종전 체류 자격의 회복(resto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예: 학생 -> 취업) 변경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과 함께 추가로 해당 자격에 대한 신청 필요하다.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과 시, 자진 출국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새로운 임시 조치에 따라 ①체류기간이 2020.1.30 이후 만료되었고 ②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자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 경과하였다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체류자격 회복 신청이 허용된다.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소지자’가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한 경우, ①회복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하였고 ②종전 취업허가에 기재된 고용주 및 직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 예정이라면, ‘회복’신청 심사중이라도 ‘임시 근로승인’을

주밴쿠버총영사관 임시 직원 채용 중

해외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담당

9월 30일까지 이메일 서류 접수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해외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담당 임시 직원 1명을 뽑기 위해 9월 30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캐나다 영주



권 보유 한국국적자,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work per-

mit 소유자 등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이다.

또 영어에 대해 통번역이 가능한 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이다.

근무기간은 2020년 10월-11월 중 52시간이다.

받아 근무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취업허가(work permit)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 비지정(open work permit) 등으로 구분 한다.

졸업후취업허가 신청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체류자격 변경(학생 -> 취업)에 해당되는 ‘졸업후 취업허가’관련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1.4.30까지 해외에

서 수강한 원격수업을 캐나다 내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여 졸업 후 취업허가 체류기간 산정한다.

졸업후 취업허가 제도(기존 원칙)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50% 이상 오프라인 이수할 경우,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불산입)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 부여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별첨 양식 준수하여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자기소개

서 (자유형식으로 영어, 한국어 각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이다.

서류는 이메일(vanacc@mofago.kr)로 제목에 임시직원 채용 지원(성명) 등을 기재하여 보내면 된다.

총영사관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면접(또는 화상 면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변 호 사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